

고래의 문학적 형상에 대한 연구

- 이식(李植)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기대*

<차 례>

1. 서론
2. 이식의 고래 체험과 시문 창작 경향
3. 고래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의 양상
4. 고래의 문학적 형상화와 현대적 의미
5. 결론

<국문초록>

고래는 바다를 대표하는 생물로서 인식되어 왔고, 특히 거대한 몸집으로 인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왔다. 따라서 문학을 포함한 여러 예술 양식에 빈번하게 등장하여 왔으며, 이 논문에서는 이식(李植)의 작품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에 나타난 고래의 문학적 형상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식의 작품에 나타난 고래의 문학적 형상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고래의 역동적인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두 번째는 인간의 삶을 이야기 기하는 과정에서 고래를 통해 비유하여 형상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사회적·역사적으로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이를 고래로 형상화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이태백 고사나 종어(鐘魚)로서의 상징을 토대로 고래의 문화적 형상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고래의 문학적 형상은 생동감이 넘치며 실제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고래를 떠올리면서 바다의 풍요로움과 환경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이것은 고래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일반화되면서, 역설적으로 고래에 대한 상상의 폭은 협소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고려대, 초빙교수.

주제어 이식(李植), 고래, 바다, 문학적 형상, 이태백(李太白), 종어(鐘魚)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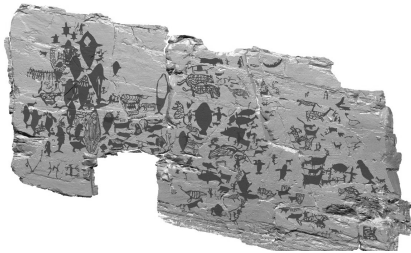


그림 1. 반구대 암각화

우리의 주변에서 고래에 대한 흔적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고 또 널리 알려진 것은 반구대 암각화이다. 반구대는 바다로부터 내륙으로 20km나 떨어져 있는 깊은 산속의 강안쪽

암벽이다. 청동기시대인지 혹은 철기시대인지 연구자에 따라 연대의 측정은 다르지만, 그 바위에는 북방긴수염고래가 물을 뿜고, 흑등고래와 귀신고래가 헤엄치고, 새끼 고래가 엄마 고래의 등을 타고 헤엄치며, 고래를 사냥하는 사람들이 새겨져 있다.¹⁾

굳이 암각화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고래등 같은 집, 술고래, 고래힘줄 등의 언어습관을 통해 전통적으로 고래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헌에 우리의 동해를 고래의 바닷가라 적고 있는 부분은 실제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 하겠다.²⁾ 때문에 고래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정은 잡아먹거나 생활 도구로 만드는 생산적인 활동에 한정되지 않고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인 맥락에서 의미를 지닌 존재였다는 점으로 확대할 수 있다.

1) 국립문화재연구소, 『반구대암각화』,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5-6면.

2) 넓디넓은 마한 땅은 곳곳이 고래의 바닷가이네. 渺渺馬韓地, 區區鯨海濱, 權近, <命題 - 馬韓>, 『應製詩』, 『陽村先生文集卷之一』.

예를 들어 고래와 관련된 가장 일반화된 표현 가운데 하나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이다. 우리 고유의 속담인 이 표현에 대하여 홍만종은 ‘경전하사(鯨戰蝦死)’라 『순오지』에 적고 “작은놈이 큰놈들의 사이에 끼어서 화를 입게 된다”³⁾라고 풀이하였다. 여기서의 고래는 덩치가 큰 생물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력이 있거나 지위가 높은 대상을 의미한다. 이 짧은 속담의 맥락을 통해 고래를 단순히 생물 자체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다른 의미를 부여하던 정황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고래에 대한 이야기들에 상상력을 더하였으리라 짐작하게 해준다. 그리고 이 상상력은 고래의 외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을 것이기에 문학적 형상화의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할 수 있다. 때문에 고래의 문학적 형상을 확인하는 작업은 우리의 고래에 대한 인식을 추적하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고전문학에서 고래의 문학적 형상을 다룬 논의는 매우 소략하다. 관련 연구로는 정약용의 <해랑행(海狼行)>을 중심으로 고래의 우화적 성격을 논의한 것이 대표적이다.⁴⁾ 이외에 『표해록(漂海錄)』에 수록된 고래 관련 서술을 검토한 것,⁵⁾ 여행기 등에서 고래를 직접 보고 묘사한 내용을 소개한 것,⁶⁾ 『어보(魚譜)』 관련 문헌에 수록된 고래에 대한 기록

3) 言小者介於兩大而受禍。洪萬宗, 『旬五志』.

4) 김상홍, 『다산 정약용 문학연구』, 단국대 출판부, 1985, 89-92면. 송재소, 『다산시 연구』, 창작사, 1986, 145-146면. 김성진, 『다산의 우언시문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87, 51-52면. 김인철, 『다산 우화시의 실증적 고찰』, 『어문논집』 43, 안암어문학회, 2001, 112-115면. 진재교, 『다산의 우언시와 그 성격』, 『고전문학연구』 26, 한국고전문학회, 2004, 355-381면.

5) 이복규, 『최부의 <표해록>에 대한 두 가지 의문』, 『고시가연구』 22,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239-240면.

6) 최호석, 『여행의 즐거움 - 옥소 권섭의 산수 기행』, 『온지논총』 21, 온지학회, 2009, 163-164면.

을 분석한 것⁷⁾ 등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드러난 고래의 형상은 대체로 고래의 특정한 부면만을 강조하거나 단편적인 언급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고전문학 관련 연구에서 고래의 문학적 형상을 다각도로 짚어 보고 그 양상을 전면적으로 다룬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의 바다에 고래가 살고 있고 우리의 문화와 삶에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관심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식(李植)의 시문(詩文)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에서 고래의 형상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식의 문집인 『택당집(澤堂集)』을 검토하여 보면 고래와 관련된 다수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고, 무엇보다 고래의 형상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료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이식의 작품으로 제한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통해 고전문학에 나타난 고래의 문학적 형상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 우선 이식이 고래를 체험하는 과정을 추정해보고 그의 시문 창작 경향을 살펴보겠다. 이어서 이식의 작품에 나타난 고래의 문학적 형상을 분류하여 논의하면서, 고래의 어떤 형상들에 관심을 가졌고 그 생각의 연원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7) 한미경, 「조선시대 물고기 관계 문헌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44, 서지학회, 2009, 266-267면.

2. 이식의 고래 체험과 시문 창작 경향

이식이 고래를 제재로 시문을 지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이식과 고래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이식의 생애를 통해 그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는 어려서 강원도 고성 출신의 선비에게 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여기서 고성은 간성 지역과 병합된 곳으로, 이식이 1631년에 현감으로 부임한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식은 1633년까지 간성에 재임하였으며, 이 때문에 이곳은 그와 매우 연관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간성은 예전부터 고래를 흔히 볼 수 있었던 지역이었다. 임제의 『풍악록(楓岳錄)』을 보면, “그날은 또 따듯한 날씨에 동남풍이 불어 바닷물이 잔잔했는데 가끔 고래가 나와 노는 모습이 보였다. 큰 새처럼 생긴 몸집이 새까맣고 물을 뿜어대면 눈발 같았으며 소리는 소울음소리 같았다.”⁸⁾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은 임제가 간성을 여행하면서 남긴 것으로, 이를 통해 간성에서 임제가 고래를 직접 보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임제는 이어서 “어부들의 말에 의하면 바닷고기로는 고래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또 황수차라고 하는 고기가 있는데 서로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고래가 죽는다는 것이다. 그 황수차는 꼭 떼를 지어 다니다가 만약 고래를 만나게 되면 수컷 하나가 지휘자로 뒤에 딱 버티고 서서 그 무리들로 하여금 번갈아서 나가게 하여 꼭 죽여 놓고야 만다는 것이다.”⁹⁾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황수차라는 종류의 물고기에 대해

8) 是日天日晴暖，東南風，海水安流，往往遊鯨出戲，形如大鳥而黑，噴水如雪，聲如吼牛。林悌，〈楓岳錄〉，『雜著』，『白湖全書』 제34권.

9) 魚人云，“海魚之大者莫如鯨，然又有魚曰，‘黃水差’與之相遇，則鯨必死，蓋黃水差，必成群而行，若遇鯨則一熊者，爲將而却立，使其徒分運而逃進，必殺之而後已”林悌，〈楓岳錄〉，『雜著』，『白湖全書』 제34권.

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황수차가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무리 생활을 하면서 교대로 고래를 공격하는 것과 이 과정에서 고래가 잡아먹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진술은 고래와 황수차라는 물고기의 습성을 잘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간성의 어부들이 고래를 자세하게 관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간성은 임제가 고래를 직접 볼 수 있었고, 또 그 지역의 어부들이 고래의 습성을 잘 알 수 있을 정도로 고래와 연관이 깊은 곳이다. 이 점은 다시 이식이 편찬한 간성 읍지인 『수성지(水城志)』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성지』에는 간성의 앞바다를 고래의 바다라 하면서 지은 시들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① 고래는 태양을 끌다 바다에 잠기고(鯨引火珠沉碧海)¹⁰⁾

② 고래 바다도 발뽀기의 남짓임을 알겠고(鯨海應知畝畝如)¹¹⁾

①은 이율곡을 탄핵하다 간성에 유배 온 허봉이 지은 <간성 영월루(杆城詠月樓)>의 한 부분이다. 허봉은 이 작품에서 태양이 떠오른 동해 바다에 고래가 태양을 따라 헤엄치며 바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시로 형상화하고 있다. ②는 이식의 <간성 동쪽 누대에서 짓다(杆城東樓作)>의 한 부분이다. 간성의 앞바다를 고래의 바다라 하고 있으며, 고래가 노니는 동해 바다라도 신선의 세상과 비교하면 발뽀기 정도라 하고 있다. 즉 고래가 노닐 수 있는 동해이지만 신선 세계와 비교하면 매우 좁다는 것인데, 이는 역설적으로 고래가 헤엄치며 놀 수 있는 동해는 매우 큰 바다라는 것을 드러낸다.

10) 고성문화원, 『간성군 읍지(原 水城志)』, 고성문화원, 1996, 97면.

11) 고성문화원, 앞의 책, 114면.

물론 이러한 시들에 대하여 허봉과 이식이 직접 고래를 보고 지은 작품이라 입증하기는 어렵다. 다만 간성 지역과 고래의 연관성이 높다는 점만은 분명하고, 이식은 이 곳에서 현감을 지냈던 만큼 이식에게 고래는 낯선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고래 체험이 이식의 시문 창작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다. 아울러 고래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실제로 지금까지 연구된 이식의 시문 창작 경향과도 잘 부합된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이식은 조선의 대표적인 문학가의 한사람으로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다.¹²⁾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이식의 창작 경향을 살펴보면, 그는 사물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거기에 자기를 대입하여 전이시키는 시문 창작의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주변의 사물, 일상의 동식물을 비롯하여 많은 다양한 소재를 시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¹³⁾ 그리고 이러한 제재를 사용하면서 사물을 대하여 표현하는 수법이 사실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고 한다.¹⁴⁾ 따라서 시문 창작의 경향을 고려한다면, 이식이 고래를 제재로 선택하는 것은 그가 시적 제재를 다양하게 수용하는 과정과 연결된다.

아울러 이식의 시문은 당대에 높은 평가를 받았고, 송시열, 남용익, 홍만중, 장유, 김창협 등에게서 거듭 거론되고 있었다.¹⁵⁾ 그만큼 이식의 시문이 널리 읽혔다는 것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이식이 고래를 제재로 하여 문학적으로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그의 고

12) 이식의 작품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경향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김현주, 『澤堂 李植의 詩 研究』,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2011, 1-3면.

13) 신경수, 『택당 이식의 기행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2, 21면.

14) 이한우, 『택당 이식 문학 연구』, 대구대 박사학위논문, 1996, 101-105면.

15) 이우정, 『택당 이식과 17세기 초 문단』, 『동방한문학』 46, 동방한문학회, 2011, 121-125면.

래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고래에 대한 인식의 사회적·문화적 기반을 확인해보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즉 이식의 고래에 대한 관심은 당대에 고래를 인식하고 형상화하는 방식과 크게 어긋나지 않았으며 다른 문인들에게도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식의 시문에 나타난 고래의 형상은 당시의 문학에 나타난 고래 형상을 아우를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3. 고래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의 양상

1) 자연적 대상으로의 형상화

(1) 고래의 역동적인 형상

이식의 생애와 시문 창작 경향을 통해, 그가 고래를 문학적 제재로 삼는 것은 낯설지 않다고 할 수 있었다. 때문에 이식의 작품 가운데 고래를 직접 보고 이에 대한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작품들을 찾아볼 수 있다.

- ① 고래 내뿜는 저 물결 풍악과 장관(壯觀) 다투고(長鯨起浪爭楓岳)¹⁶⁾
- ② 고래가 흰 물결 내뿜으며 세차게 달려가고(長鯨怒挾雪波走)¹⁷⁾

위의 ①은 <영월루 시에 차운하다>라는 작품이다. 여기서 영월루(詠月樓)는 앞서 허봉의 시에서도 나온 장소로 간성(杆城)의 객관(客館) 동

16) <次詠月樓韻二首>, 『詩』, 『澤堂集』 제5권. 인용은 한국고전번역원 DB를 중심으로 이상현의 번역을 활용하였다. 이상현 번역, 『국역 태당집』, 민족문화추진회, 1997.

17) <兩西歎>, 『詩』, 『澤堂集』 제3권.

쪽에 위치해 있으며, 바다와 맞닿아 있는 산꼭대기 절벽 위에 세워진 정자이다.¹⁸⁾ 현재는 남아 있지 않지만, 전해지는 작품을 통해 바다를 넓게 볼 수 있는 장소였다고 짐작할 수 있다. 때문에 이식은 이곳에서 저 멀리 고래가 헤엄치는 것을 보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 장면을 고래가 숨을 쉬기 위해 내뿜는 포말의 장관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한편 ②는 <양서탄(兩西歎)>이라는 작품이다. 양서(兩西)는 지금의 황해도와 평안도를 지칭한다. 그리고 작품에서는 중국으로 가는 발해(서해)의 바닷길에 고래가 흰 물결 내뿜으며 세차게 내달린다고 하였다. 여기서의 고래도 ①에서와 같이 기세 좋게 헤엄치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물론 나타난 작품만을 보고, 이식이 고래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진술한 것인지, 아니면 시적 표현을 위해 상상으로 그려낸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직접 보고 묘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증하기 어렵다. 다만 고래라는 생물을 그 자체로 역동적이면서도 힘찬 존재로 형상화하려 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위의 작품을 통해 드러난 고래의 모습은 현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래에 대한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때문에 여기서는 고래의 외형적 모습을 강조하여 형상화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2) 거친 자연 환경의 형상

고래는 그 크기나 모습을 쉽게 짐작할 수 없어 거대한 것을 형상화하는 데 적합하다. 더욱이 그 크기나 모습을 표현해야 하는 대상이 바다이고,

18) 금강산은 남쪽으로 내달려 땅 끝에 닿았고, 하늘이 큰 바다와 이어진 곳에 높은 누각이 있네.(楓岳南奔地盡頭。天連大海有高樓)。李時省, <登詠月樓>, 『七言律詩[下]』, 『騏峰集』 卷之三。

구체적으로 파도의 높이나 경관을 표현해야 한다면 이를 형상화하기 위한 대상으로서 고래는 맞춤이 된다. 육지에서라면 크다라는 표현을 위해서 인간의 건축물이나 자연물 등을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겠지만, 바다에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를 표현하려 한다면 고래이외엔 생각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고래는 다른 생물을 통해 표현할 수 없는 바다의 또 다른 모습을 형상화한다.

① 익수 타고 고래등 같은 큰 파도 넘노라면(鷁首鯨濤外)¹⁹⁾

② 고래등 같은 바다 물결 지축(地軸)을 온통 뒤흔드네(鯨蹙滄溟撼坤)²⁰⁾

위의 작품 ①은 <일본 통신사의 종사관으로 가는 이부(吏部) 신군택(申君澤) 유(濡)를 전송한 시>이다. 신유(申濡)는 1643년에 통신사(通信使)의 종사관으로 일본에 다녀왔으며, 이식이 신유를 전송하며 이 시를 지었다.

여기서 익(鷁)은 백로와 비슷한 모양의 큰 새로서 바다의 풍랑을 잘 견뎌낸다고 한다. 이에 뱃머리에 익(鷁) 모습을 새겨 걸어 놓았으며, 익수

19) <送申吏部君澤 濡 從使日本二首>, 『詩』, 『澤堂集』 속집 제6권.

20) <吳賓客汝完 竣 示以前前燈夕唱酬詩, 其中有存念不敏之作亦數首, 要余追和之, 屬余重患頭痛熱眩, 久未之思也, 茲於病間, 感其致意之勤, 依韻襲律, 少效衷私, 牽強拗捏, 不足爲詩也, 凡十七首, 빈객 오여완 준이 연전에 지은 등석 창수시를 나에게 보여 주었는데, 그 속에는 나를 잊지 않고 생각해 준 작품이 또 몇 수 들어 있었다. 그때 그가 나에게 그 시에 화답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당시에는 내가 마침 중병에 걸려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며 현기증이 났기 때문에, 오래도록 그 일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지금 병증이 약간 뜸해지면서 그가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 준 그 뜻이 새삼 고맙게 여겨지기에, 운율을 그대로 따라서 나의 정성을 조금 바치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강제로 떠밀린 나머지 그냥 한번 지어 본 것일 뿐이니, 시라고 할 수도 없다 하겠다. 모두 열일곱 수이다.> 『詩』, 『澤堂集』 속집 제5권.

(鷓首)는 커다란 배를 의미한다. 때문이 이 작품에서는 통신사들이 타는 배를 익수라 하였고, 사신을 태우고 가는 배인 만큼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익수가 넘어야 하는 물결은 경도(鯨濤) 즉 고래 파도이다. 고래 파도는 잔잔하거나 활랑거리는 물결이 아니라 고래와 같이 힘차고 크게 일렁거리는 파도이다. 때문에 고래 파도가 높고 거칠수록 익수를 타고 가는 모습이 잘 부각된다.

한편 크게 넘실 거리는 파도를 고래 파도라고 하였지만, 이 파도는 한 번만 치고 잦아들지 않는다. 그래서 고래들이 무리지어 헤엄칠 때 물결이 연이어 출렁거리는 것처럼 고래 파도는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의 모습을 표현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커다란 파다가 몰려올 때, 그 바다는 더 이상 낭만적이거나 평화롭지 않다. 오히려 이어져 부딪치는 파도는 위협하고 거칠다. 따라서 ②의 작품에서는 거친 바다를 고래로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은 오준(吳竣)²¹⁾이 지은 시에 이식이 수창(酬唱)한 작품인데, 내용에서 고래의 등과 같은 물결이 너무 거세어 지축을 뒤흔든다고 하였다. 지축을 흔들 수 있는 물결의 세기를 고래에 비유함으로써, 그 형상을 매우 거세고 큰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큰 고래가 서로 싸워 바다가 뒤집히듯(悅鯨鬪之動海)

일만 리에 물결이 들끓으며 일어나고(沸萬里之波浪)²²⁾

위의 작품은 <대풍부(大風賦) 병오년>이다. 여기서의 겨울 바람이 거

21) 吳竣 : 1587~1666.

22) <大風賦>, 『賦』, 『澤堂集』 별집 제12권.

세계 불어 이로 인해 파도가 뒤집어 지듯이 몰아치는 것을 고래들의 싸움으로 비유하고 있다. 너무 거친 바람에 바다가 들끓으며 파도가 날리는 것은 마치 고래들이 다투어 생긴 파도와 같다는 것이다.

때문에 큰 파도와 거친 바다는 이제 생사를 걸고 건너야 하는 바다가 된다. 파도는 너무나 크고 높아 고래등 같으며, 이러한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는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

병선에선 고래등 물결에 빠질까 겁을 내리라(畏沒鯨鯢波)²³⁾

양점(梁漸)에게 보낸 위의 작품에서 사람들은 고래등 같이 거센 바다에 빠질까 겁을 낸다고 한다. 더욱이 이들이 타고 있는 배가 병선이라는 점에서,²⁴⁾ 고래등 같은 물결은 군사들을 태우고 다니는 아무리 강한 배라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친 바다로 형상화된다. 따라서 고래는 무섭게 변한 바다와 자연환경을 형상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표현은 단순히 고래의 외형만을 묘사하는 것에서 벗어나, 고래를 통해 형상화할 수 있는 영역이 더욱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인간적 삶의 형상화

살아 움직이는 고래를 통해 자연물을 형상화하는 것은 고래의 원관념

23) <오월 십칠일 밤에 양군 자점과 함께 서쪽 누대에 앉아서 각자 고향의 산수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다. 그리고는 이윽고 달이 관새의 산에 떠오르자 서로들 탄식하면서 이 달이 우리들의 고향 집에도 분명히 비취 주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관산월 한 수를 지어 그에게 주었다. 五月十七日夜, 與梁君子漸坐西軒, 各敘故山泉石之思, 已而月出關山, 相與歎息曰, 此月必照兩鄉矣, 作關山月一篇以贈之>, 『詩』, 『澤堂集』 제3권.

24) 시의 내용 가운데 “배회하는 달 그림자 요동 땅 병선에 떨어질 때(徘徊影落遼兵船)”라는 구절을 통해, 장소가 병선임을 알 수 있다.

을 중시한 것이며, 역동적인 모습을 기본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고래에 대한 형상은 그 크기나 모습으로 인해 자연적 대상만을 형상화하는데 한정되지 않고, 그 이상의 상상이 내재화된다. 그리고 고래에 대한 관심이 오랜 세월에 걸쳐 진행되었던 만큼 그 의미들은 더욱 다양하게 전개되며 공감을 획득하게 된다. 그래서 자연물로서의 고래는 더 나아가 인간 삶을 비유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새롭게 확장된다.

(1) 인간 삶의 활달한 기상

이슬 풀 사이에 반짝이는 반딧불보단(不知露草流螢點)

푸른 동해 고래잡이가 훨훨 낚지 않을까(何似屠鯨碧海東)²⁵⁾

위의 작품은 권극중(權克中)²⁶⁾에게 보낸 작품이다. 여기서 고래를 잡는다는 것은 시를 짓는 방법으로서 호방한 기상을 비유한다. 반면에 반딧불처럼 반짝이는 것은 섬세한 기교를 위주로 시를 짓는 방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래의 생동하는 모습과 이를 잡으려는 대담한 태도는 시를 짓는데 있어서 활달한 방법을 부각시킨다. 이렇게 고래를 통한 형상화는 인간 삶의 단면을 비유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전이되고 있다.

푸른 고래 수염을 붉은 붓대에 묶어 놓고(靑鯨鬣束彤玉管)

맑은 날 성홍에다 은하수를 쏟아 부어(星泓晴日流銀漢)

비래정에 써 놓은 비자 절로 날아가 버렸나니(亭飛筆飛字自飛)

적선께서 능운필(凌雲筆)을 휘둘러 남긴 글씨였네(謫仙已矯凌雲翰)²⁷⁾

25) <권 진사 극중에게 부치다. 권생이 처음에 이백의 시를 배울 때에는 그 기상이 호방해서 볼 만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 가요를 배우면서는 섬세하게 기교만 부릴 뿐 보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풍자한 것이다. 寄權進士克中, 權生初學李白, 豪放可觀, 今學賈姚, 纖巧不佳, 故以此諷之>, 『詩』, 『澤堂集』 제6권.

26) 權克中 : 1585~1659.

이는 <비자입해가(飛字入海歌)>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양사언(楊士彦)의 ‘비(飛)자(字)’에 대한 전설을 토대로 하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양사언이 일찍이 경포 호숫가에 비래정(飛來亭)을 세우고는 큰 글씨로 ‘비(飛)자(字)’를 벽에 붙였는데 양사언이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나던 날에 바람과 우레가 치면서 정자의 벽에 붙어 있던 ‘비’자의 글씨를 휘감아 바다 속으로 집어넣었다고 한다.²⁸⁾ 이러한 전설은 결과적으로 양사언의 뛰어난 서체에 대해 말한 것이다. 그리고 ‘비(飛)자(字)’를 쓴 붓이 바로 푸른 고래의 수염으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

푸른 고래의 수염은 붓 가운데 가장 좋은 붓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고래의 수염은 당시 진상품이나 임금의 하사품으로 알려져 있다.²⁹⁾ 고래에서 얻은 부산물은 당대에 매우 귀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점에서 시에 나오는 푸른 고래 수염으로 만든 붓은 민간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었을 것이다. 때문에 진귀한 푸른 고래 수염 붓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사언 같은 명필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는 의미가 드러나며, 나아가 양사언은 하늘도 감응할 정도의 명필이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부각시킨다. 때문에 위의 시에서 푸른 고래 수염으로 만든 붓은 그만큼 양사언의 필체를 극대화하여 형상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일천 리 큰 고래는 바다에 누워 쉬겠지만(長鯨千里偃溟渤)

하루 일 피곤한 비둘기야 가지 하나면 안 되겠소(刺促鸞鳩一枝足)³⁰⁾

27) <飛字入海歌>, 『詩』, 『澤堂集』 속집 제6권.

28) 楊公士彦, 嘗作飛來亭于鑑湖上, 大書飛字帖壁, 楊公在謫所觀化, 其日風雷亭壁, 捲飛字入海去. <飛字入海歌>, 『詩』, 『澤堂集』 속집 제6권.

29) 상왕이 내시 최한을 보내어, 황엄에게 흰 숫돌과 고래 수염을 선사하였다. 上王遣宦官崔閑, 贈黃儼白礪石及鯨鬚. 『국역조선왕조실록』 세종 1년(1419) 8월22일.

30) <江湖行和子實>, 『詩』, 『澤堂集』 속집 제2권.

위의 작품은 <강호행(江湖行)을 지어 자실(子實)에게 화답하다>라는 시이다. 자실(子實)은 조문수(曹文秀)³¹⁾의 자(字)이다. 시에서는 벼슬에서 물러난 그대는 고래와 달라서 조그마한 썰 자리만 있으면 충분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시에서 고래는 상대적으로 벼슬하고 있는 인물 혹은 그러한 삶을 범칭하여 형상화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삶을 통해 비유된 고래의 형상은 활달한 것, 최고의 것, 지위가 높은 것, 고귀한 존재, 화려한 삶 등을 의미한다. 즉 인간 삶의 한 단면을 기저에 두면서 고래를 통해 크고 대단한 모습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2) 인간 삶의 고난과 극복

인간의 삶이 다양한 굴곡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고래의 모습도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대단하거나 활달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의 삶에서 반드시 거치기 마련인 고난을 드러내는 과정도 고래를 통해 형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는 극복하지 못할 과정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고래와 자라가 아무리 위협을 하며 갈 길을 막는다 해도 그때의 흥명함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니, 이는 그야말로 천하에서 가장 험난한 경우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鯨吞鼇掣, 未足以喻其猛, 此天下至險也)³²⁾

위의 인용문은 이식이 오숙(吳翮)³³⁾을 위해 지은 <주청 겸 사은부사

31) 曹文秀 : 1590~1647.

32) <送奏請謝恩副使吳公 翮 渡海朝京序>, 「序」, 『澤堂集』 제9권.

로 바다를 건너 중국에 조회하러 가는 오공 숙(翻)을 전송한 글>이다. 이 작품을 보면 오숙이 중국으로 가는 길의 여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어려움은 고래가 길을 막는 것으로 형상화되어 있으면서, 그 여정은 천하에서 가장 험난하다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오숙의 성품과 능력으로 인해 아무리 험한 고난이라 하더라도 이를 극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고래나 악어 역시 하루살이에 불과할 뿐(鯨鱉乃蜉蝣)
그 누가 이를 보고 걱정하며 겁내리요(誰爲憂怖想)³⁴⁾

위의 작품은 이지천(李志賤)³⁵⁾을 위해 지어준 작품이다. 여기서도 이지천이 사행길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고래의 방해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 역시 이지천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이다. 오히려 이지천의 뛰어난 재능을 드러내기 위해 고래로 표현되는 고난을 허찮은 것이라 묘사하고 있다. 즉 고래의 방해로 표현된 어려움은 그만큼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시를 받은 인물은 그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생각을 드러내어 상대를 격려하는 것이다.

유관에 떠도는 요기(妖氣) 어느 때나 견힐런고(楡關氛祲幾時淸)
요동 바다 못된 고래 아직껏 삶지를 못했어라(遼海鯨魚未就烹)³⁶⁾

33) 吳翻：1592~1634. 1625년 謝恩兼奏請副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34) <이 서장 지천 이 사신을 수행하여 중국에 갈 적에 뱃멀미를 할까 걱정하였는데, 이에 우스개로 외교의 말을 써서 두 편의 시를 뒤따라 지은 뒤 부쳐 보내다. 李書狀 志賤 佐价朝天, 以患缸暈爲憂, 戲用外教語, 追作二頌奉寄>, 『詩』, 『澤堂集』 제4권.

35) 李志賤：1589~1683. 1630년 중국으로 파견된 진주사의 서장관으로 사행길에 올랐다.

36) <능성 구공 굉 을 대신해서 정 부총이 보여 준 시에 차운하다.(代綾城 具公宏 次程 副摠示韻)>, 『詩』, 『澤堂集』 속집 제4권.

위의 작품은 명나라의 사신으로 온 정룡(程龍)³⁷⁾에게 구굉(具宏)³⁸⁾을 대신 하여 이식이 지은 글이다. 정룡은 인조 11년(1633) 조선에 왔는데, 당시는 명나라의 말기로서 금이 만주에서 세력을 키워가던 시기였다. 그리고 여기서의 고래는 정룡이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앞의 작품들과 같이 언젠가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제로 하여 형상화하면서, 상대방인 정룡의 인물됨을 높이고 있다.

요컨대 위의 작품들에서는 인간의 삶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극복해야 할 대상을 고래를 통해 비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통은 매우 심하여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상대되는 인물은 이를 넘어설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때문에 고래는 고난의 정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형상화한 것이 된다.

3) 사회적 존재로서의 형상

고래가 문학적으로 거친 바다나 고난 혹은 어려움으로 형상화되는 것은 그 크기로 인해 연상된 것이다. 따라서 고래에 대한 형상은 더욱 외연이 확대되어 거칠거나 어렵다는 속성이 내재화된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고래의 형상이 부각된다.

(1) 정치적 대상으로서의 형상

주둥이에 피 묻힌 고래와 상어(鱣鯨血喙)

용왕의 손자를 물어 뜯었도다(噬龍孫兮)³⁹⁾

37) 程龍 : 중국 명의 부총병으로 조선에 왔다.

38) 具宏 : 1577~1642.

위의 작품은 <능창군 묘지명>이다. 능창군(綾昌君)⁴⁰⁾은 선조의 손자로 광해군 당시에 왕위를 위협한다하여 역모로 몰려 사형당한 인물이다. 따라서 위의 시에서 용왕의 손자는 능창군을 지칭하며, 고래는 광해군의 세력을 의미한다.

이식의 정치적 입장을 살펴보면, 그가 어울린 인물들은 광해군 때 복인 세력의 정치적 전횡에 비판적인 인물들이었다.⁴¹⁾ 또한 이식이 관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광해군에게 쫓겨난 인사들이 인조반정 이후 벼슬에 오르면서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다.⁴²⁾ 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이식은 광해군과 그의 세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고래를 통해 이를 형상화한 것이다. 때문에 고래의 형상에는 그만큼 매우 극단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피를 묻히고 있다는 표현을 통해 그 잔인함이 시각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는 고래를 정치적인 적대자로 특정하게 지칭하고 있다.

39) <綾昌君墓誌銘>, 『墓誌』, 『澤堂集』 제10권.

40) 綾昌君 : 1599~1615.

41) 이상배, 『인조대 태당 이식의 관직생활과 현실인식』, 『백산학보』 83, 백산학회, 2009, 527면.

42) 폐조 때에 조정에서 쫓겨나 물가에 은둔한 명류들이 많았는데, 당시에 청강 팔현이니 수상 삼사니 하는 이야기가 떠돌았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쫓겨난 인사들 자신이 자기들을 표방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 아니라, 바로 그때의 간악한 무리들이 무욕을 날조해 내리는 목적으로 이런 유언비어를 먼저 만들어 퍼뜨려 놓은 것이었다. 그런데 반정 이후에는 제군이 거꾸로 이 이름을 얻은 인연으로 해서 풀뿌리가 서로 얽혀 뽕혀 나오듯 조정에 잇따라 진출하게 되었고, 용렬하고 비루하기만 한 나 역시 전후에 걸쳐 혼취하는 일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사람의 일이란 이처럼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廢朝時, 名流多放逐懸居水上者, 其時有清江八賢水上三士之說. 此非逐客自相標榜, 乃其時奸黨欲構成逆獄, 先設飛語耳. 反正以後, 諸君反用此名連茹而進, 以余庸卑, 亦不免前後混吹, 人事之不可常, 有如此夫.) <水上有感>, 『詩』, 『澤堂集』 제5권.

고래가 솟구치듯 뿔뿔이 돌격해 오듯 하는 이런 급박한 처지에서 어쩔 수 없이 위로 장추(長秋)⁴³⁾에게 근심을 끼쳐 드리게 되었다.(奈此鯨奔豕突, 上軫長秋之慮)⁴⁴⁾

위의 작품은 이괄(李适)의 난에 대한 이식의 교서(敎書)이다. 앞서 광해군의 세력을 고래로 형상화하였던 것처럼, 여기서는 난리를 일으킨 이괄의 무리가 진격해 오는 형세를 고래가 솟구치는 것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괄은 반란 초기에 승승장구하여 서울을 점령하였고 인조는 공주로 피난을 갈 정도로 상황이 다급하였다. 따라서 당시 이괄의 세력이 크고 위협적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고래를 통해 그 형세를 비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고래를 감당하기 어려운 부정적 대상으로 보는 것은 『사통(史通)』에서 “역신(逆臣)을 논할 때는 문정(問鼎)이라 부르고, 큰 도적을 일컬을 때는 장경(長鯨)으로 지목한다.”⁴⁵⁾라는 구절을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어느 정도 관습화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고래에 대한 인식과 형상이 오랜 연원을 통해 전개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⁴⁶⁾

43) 태후의 궁궐로 인목대비를 의미한다.

44) <갑자년 난리를 평정한 뒤에 중외에 사면령을 반포한 교서(甲子平難後頒赦中外敎書)>, 『敎書』, 『澤堂集』 별집 제1권.

45) 유지기, 이운화 번역, 『敎事』, 『사통통석』 2, 소명, 2012.

46) 고래를 통해 부정적 형상을 대체하는 문학적 관습은 다른 기록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① 고대의 영명한 군주는 불경한 자들을 정벌했는데, 작은 나라를 삼키려는 의롭지 못한 사람이 잡아죽인 다음 흙으로 그 시체를 덮었다.(古者明王伐不敬, 取其鯨鯢而封之, 以爲大戮.). 『左傳』, 선공12년. 여기서 경에는 대어의 이름인데, 이로써 의롭지 못한 사람이 작은 나라를 삼키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② 의롭지 못한 자의 여적이 버리에 남아있겠지요(鯨鯢唐突留餘迹).李白, <赤壁歌送別>. 여기서 ‘鯨鯢’는 암고래와 솟고래를 뜻하는데 ‘의롭지 못한 사람’이나 ‘홍포한 악인’, 즉 조조를

(2) 일본의 상징적 형상

고래 형상이 특정한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지니게 되면서, 고래는 단순한 자연물이나 개인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게 된다. 그리고 고래는 부정적인 대상으로서 일본을 지칭하여 대체된다.

큰 고래 장난칠까 걱정을 하지 마소(莫愁鯨作橫)⁴⁷⁾

위의 글은 <회답부사(回答副使) 강임보(姜任甫) 홍중(弘重)이 일본에 가는 것을 전송하며>라는 제목의 작품이다. 여기서 강홍중⁴⁸⁾은 1624년 통신부사(通信副使)로 일본에 다녀온 인물이다. 따라서 이식은 시에서 일본에 가게 되었을 때 일본이 어떤 속셈을 지니고 흥계를 꾸미지 모르니 조심하라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흥계를 꾸미는 대상을 고래를 통해 형상화하였다는 점에서, 고래는 일본을 지칭한다.

이와 관련하여 왜구의 침략이 빈번했던 지역으로 부임하는 인물들을 전송하며 보낸 시에서, 이식은 부임하게 된 인물들에게 왜구를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는 시를 지어준다.

① 칼을 걸어 놓으면 장경도 길을 피하리라(掛劍長鯨避)⁴⁹⁾

② 담소간에 경파를 잠재우리라 확신하오(知君談笑息鯨波)⁵⁰⁾

뜻한다.

47) <送回答副使姜任甫 弘重 赴日本>, 『詩』, 『澤堂集』 속집 제3권.

48) 姜弘重 : 1577~1642.

49) <寄呈東萊柳使君>, 『詩』, 『澤堂集』 속집 제3권.

50)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는 죽음 조공 희일이 대궐에서 하직 인사를 드릴 때, 상이 직접 대면하고 유시하기를 “영남 지방은 그 풍속이 무를 좋아하지 않는데, 경이 또한 문헌지사이니, 무사에도 아울러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였으므로, 공이 공려하며 물러나왔다. 그리고는 교외에 나와서 그 말을 전벌하는 객들에게 들려주면서 나

위의 ①은 <동래(東萊)의 유사군(柳使君)⁵¹⁾에게 부쳐 준 시>라는 작품으로, 이식이 동래(東萊)로 부임하는 유경즙(柳景緝)에게 보낸 것이다. 그리고 요충지인 동래(東萊)의 사군(使君)으로 조정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인 유경즙이 뽑힌 것이라고 시에서 말하고 있다.⁵²⁾ 위의 내용에서 장경(長鯨) 즉 큰 고래는 왜구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작품은 비록 왜구라 하더라도 유경즙의 기개와 능력이라면 알아서 피할 것이라는 맥락에서 해석된다.

②는 조희일(趙希逸)⁵³⁾이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자 그를 위해 지은 작품이다. 여기에서도 경상도의 중요한 문제로 왜구를 거론하고 있으며, 관찰사로 부임하는 조희일이 왜구의 폐해를 막을 것이라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이식은 고래 혹은 고래 파도를 왜구로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는 바다를 건너오는 왜구의 흉악하고 잔인한 모습을 고래로 형상화함으로써 왜구의 위협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소식(蘇軾)의 시에서 ‘동쪽에서 온 고래같은 해적’이라 표현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고래를 왜구로 비유하는 것은 이전부터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⁵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고래에 대한 형상화의 방법은 작자

에게 작별 선물로 시를 지어 달라고 청하기에, 내가 삼가 성상께서 분부하신 뜻을 부연하여 한 수를 지었다. 嶺南按使竹陰趙公 希逸 陞辭時, 自上諭曰, 嶺俗不好武, 卿文翰之士, 宜兼飭武事, 公兢厲而退, 出郊次, 以語錢客, 且要植臚亭, 謹因聖教之意, 演爲韻語。>, 『詩』, 『澤堂集』 제5권.

51) 柳使君 : 柳景緝

52) 첫째가는 요충지인 동래의 사군으로, 나라의 그릇인 우리 유후 그래서 뽑혔도다(萊山寔要衝, 柳侯實國器). <寄呈東萊柳使君>, 『詩』, 『澤堂集』 속집 제3권.

53) 趙希逸 : 1575~1638. 조희일은 1630년 경상감사로 부임하였다.

54) 동쪽에서 온 고래 같은 해적들이 병선을 몰아내는데, 바다 귀신은 머리 아홉 거북이 눈이 여섯(長鯨東來驅海鱗 天吳九首龜六眸). 蘇軾, 『送馮判官之昌國』, 『蘇東

인 이식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만이 아니라 일종의 문화적 자장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4) 문화적 상징으로의 형상

문화적으로 관습화된 고래에 대한 형상은 이태백 및 불교적 상징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전통적으로 고래를 상상하고 인식하던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1) 이태백 고사의 변용

- ① 고래 타고 하늘 위로 멀리 떠난 사람이여(天上跨鯨人已遠)⁵⁵⁾
- ② 고래를 타고 간 사람의 큰 시구는 허 참군일세(騎鯨大句許參軍)⁵⁶⁾

①의 작품에서 고래를 탄다는 내용은 인조(仁祖) 1년(1623)에 세상을 떠난 임숙영을 이태백(李太白)에 비유해서 표현한 말이다. 전설에 의하면 이태백(李太白)이 술에 취한 채 채석강(采石江)에서 노닐다가 물속의 달을 잡으려다 빠져 죽은 뒤 고래를 타고[騎鯨]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문진보』에 실린 글 가운데 마존(馬存)의 <연사정(燕思亭)>이란 시에서 “이태백이 고래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니, 강남의 풍월 한가한 지 여러 해였네.(李白騎鯨飛上天, 江南風月閑多年)”⁵⁷⁾라고 되

坡全集』下, 中國書店, 1994.

55) <한 사군의 배 안에서 가비 용아를 만났는데, 그녀는 바로 옛날에 소암을 모시던 가희였다. 이에 그녀에게 주자의 운을 써서 시를 지어 주었다.(韓使君舟中, 遇歌婢龍兒, 卽疏庵舊侍姬也, 用州字韻贈之)>, 『詩』, 『澤堂集』 속집 제4권.

56) <낙민루에 올라 도사 허자하 적 어른과 함께 담소하며 술을 마시고 나서 추후 시를 지어 흥취를 기록하다. 3수(登樂民樓, 與都事許子賀 摘 丈談飲, 追賦記興, 三首)>, 『詩』, 『澤堂集』 제1권.

어 있어, 이는 당시 매우 일반화 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이식도 임숙영의 죽음을 이태백이 고래를 타고 죽은 것에 비유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임숙영의 뛰어난 자질을 드러내기 위한 시적 표현이라 하겠다.



그림 2. 남장사 극락보전 벽화

②의 시에서 허참군은 도사(都事) 허적(許績)을 지칭한다. 여기에서도 허적이 이태백과 같은 시를 지을 만한 인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경(騎鯨)’의 고사는 이태백을 상징하는 맥락에서 흔히 사용된다.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 문화의 곳곳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회화 작품인 <기경상천도(騎鯨上天圖)>⁵⁸⁾와 판소리를 비롯한 문학 작품과⁵⁹⁾ 민요⁶⁰⁾에서도 기경(騎鯨)의 의미가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태백이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고사에 따른 고래의 형상은 이식의 작품에서뿐만 아니라 당시 일종의 문화적인 표현으로 폭 넓게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57) 마준, 성백효 역, <燕思亭>, 『古文眞寶前集』, 전통문화연구회, 2001, 210-211면.
 58) 인용한 그림을 보면 왼쪽 상단에 ‘李白騎鯨上天’이라 적혀 있어, 이태백이 고래를 타고 하늘로 가는 내용을 그린 그림임을 알 수 있다.
 59) 첩첩산중에 놀던 토끼가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앙금 펄쩍 나서면서 그 누가 날 찾아 ... (중략)... 왕월장취 강남 태백 기경상천 험한 길 함께 가자고 날 찾아 <수궁가>
 60) 영웅인들 늙지 않고, 호걸인들 죽잖을까? 영웅도 자랑 말고, 호걸도 말을 마소. 만고 영웅 진시황도 여산추초 잠들었고, 글 잘하는 이태백도 기경상천 하여있고 <백발가>

(2) 종어(鐘魚)로서의 형상

고래는 속세에서 뿐만 아니라 불교적으로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절에서 종을 치기 위해 고래의 형상으로 깎은 것을 종어(鐘魚)라고 한다. 이식의 시에서도 종어로서의 의미를 지닌 고래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① 경어 우는 소리에 스님들 발우(鉢盂) 공양했고(鯨魚自吼僧催鉢)⁶¹⁾
- ② 높다란 종루(鍾樓)에선 고래가 밥 시간 알려 주고(樓高鯨喚粥)⁶²⁾
- ③ 베갯머리 들려오는 고래 울음 범종(梵鍾) 소리(枕上吼華鯨)⁶³⁾



그림 3. 수덕사의 고래 모양 당목

①에서 경어(鯨魚)가 우는 소리는 절에서 시각을 알리는 종소리를 의미한다. 절에서 종을 치기 위한 당목(撞木)을 고래 형상으로 만드는데, 고래가 종을 치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 시간을 알리기도 하고 신도를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절에서의 범종은 경

종(鯨鐘)이라고도 한다.

이는 고래에 대한 전설과 관련된다. 이야기에 따르면 용왕의 셋째 아들인 포뢰(蒲牢)가 있는데, 포뢰는 울음소리가 크고 아름다웠으며 마음이

61) <낙산사에서 양양 부사인 이여복 경용 종장을 만났는데, 이날 눈이 크게 내렸다. 3수(洛山寺, 會襄府李汝復 景容 宗丈, 是日大雪, 三首)>, 『詩』, 『澤堂集』 제5권.

62) <절간에 도착한 다음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이숙평 준의 시에 차운하다.(到寺次 李叔平 坡 見待韻)>, 『詩』, 『澤堂集』 속집 제2권.

63) <울암사에서 운자를 불러 각각 하나씩 얻은 다음 함께 노닌 이들에게 보여 준 시 10수.(巖寺, 呼韻各一字, 示同遊, 十首)>, 『詩』, 『澤堂集』 속집 제2권.

약해 조그마한 소리를 듣거나 큰 몸집의 그림자만 보아도 울었다고 한다. 따라서 사찰에서 범종을 만들 때 소리가 아름답게 울리라고 종의 가장 윗 부분에 포뢰를 조각해 두었다고 한다. 그리고 종의 소리를 더욱 크게 퍼트린다는 의미에서 당목(撞木)에 고래를 새겨 넣었다고 한다. 그래서 바다에 사는 가장 큰 생물인 고래도 포뢰를 두드린다는 의미의 고뢰(叩率)에서 고래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때문에 절에서의 종소리와 고래를 결부시키는 것은 문화적으로 오랜 연원을 지닌다. 소동파의 <정인원(淨因院)>이란 시에서 “빨리 공양하라고 고래가 밤중에 울어대네.(催粥華鯨吼夜闌)”⁶⁴라는 구절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예이다.

따라서 ②에서도 고래에 대한 전설을 토대로, 고래가 시간을 알려준다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③의 시에서도 범종 소리를 고래 울음으로 비유하여, 고래에 대한 상징적인 맥락에서 그 의미를 형상화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위의 작품들에는 모두 범종의 울림을 고래가 포뢰를 두드리는 것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처럼 불교적 상징의 맥락에서 고래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이식의 작품에 나타난 고래의 여러 국면 가운데 하나이다.

4. 고래의 문학적 형상화와 현대적 의미

과거의 사람들이 고래를 보았다면, 지금처럼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라 포유류이며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며 지구의 반바퀴를 헤엄친다는 식의 과학적 지식으로 살피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그 크기에 대한 호기심

64) 蘇軾, 『題淨因院』, 『蘇東坡全集 下』卷48, 中國書店, 1994.

으로 인해 다양한 상상의 세계가 펼쳐졌을 것이다.

때문에 동해안을 중심으로 고래의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⁶⁵⁾ 물론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의 ‘요나’ 이야기나 『피노키오』의 ‘제페토’ 할아버지를 통해서 지금은 널리 알려진 것이기도 하다. 다만 성대중(成大中)의 『청성잡기(靑城雜記)』에 실린 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⁶⁶⁾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래는 사람이 그 곳에 들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큰 것을 대변하는 존재였다.

그리고 이식의 작품에 등장한 고래의 문학적 형상도 그 기저에는 큰 것에 대한 상상을 담고 있다. 역동적인 모습과 함께 거친 바다, 삶의 고난, 대적하기 어려운 적대자들뿐만 아니라, 이태백을 천상으로 보내고 포리를 울게 했다는 형상의 이면에는 커다란 고래만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연원은 오

65) “[김필린] 사람이 하나 배로 타고 떡 나가이까네, 뭐 고기 잡으로 쪼맨은거 타고 나갔다. 고래가 굶다는 기 마 마 배 채로(통채로) 마 [청중1:웃음] 배 채로 마 사람 채로 마 홀 마셔뿌겨등. [청중2:고래가?] 고래가 마시뿌고 있으이, [청중:웃음. 아이고, 우스버가(우스워서) 배 창자 곱추겠다. 누가?] 하, 내 말 들어 봐라. 마셔 마셔 마셔뿌고 있으이 사람이 안 죽었다 말이다. 배 채로 마 배 안에 있는 사람을 마 고래가 마셔뿌 퍼 놓이,” 김필린 구연(울주군 강동면), 『한국구비문학대계』 8집 12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362-364면.

66) 울진 둔산진의 어떤 백성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전복을 작살로 찢러 잡다가 고래를 만나 배와 함께 고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고래 뱃속에 들어가 보니 작살을 놓릴 만큼 넓었으므로 온 힘을 다해 마구 찢러 대자 고래가 고통을 참지 못하고 그를 토해 내었다. 나와 보니 온몸이 흰 소처럼 허영계 호물호물해지고 수염이나 머리털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 백성은 결국 나이 구십이 넘도록 살다가 죽었는데, 천명이 다하지 않았기에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다.(蔚珍屯山津岷, 乘舟入海叉獲, 遇鯨並舟而吸, 岷入鯨腹, 恢可容叉, 盡力亂刺, 鯨不耐痛, 吐之, 渾體皆爛蛻如白牛, 無一鬚毛, 年過九十而沒, 天命未盡, 入鯨腹而猶免也.) 성대중 저, 성백효 역, 『靑城雜記』 4권.

랜 전통이었기에 이식의 작품에 형상화된 고래에 대한 인식과 상상도 관습적이면서도 문화적인 기반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이식의 고래에 대한 관심과 문학적 형상화의 특징을 이식만의 개성이 담긴 문학적 표현이라 단언하기는 어렵다.

대신에 이식의 고래에 대한 형상이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시의 제재를 폭넓게 활용하는 이식의 시문 창작 경향과 관련되며, 이로서 고래를 문학적 제재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형상화가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식의 고래에 대한 시문은 오히려 당대의 고래에 대한 문학적 형상을 포괄적으로 보여준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래의 문학적 형상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고래를 부정적 대상으로 대체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고래를 부정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형상화하는 것은 앞서 본문에서 논의한 것처럼 문학적 관습과 연계된다고 우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적 관습과 함께 실제로 고래가 당시의 백성들에게 있어 달가운 존재만은 아니었던 상황도 영향을 주었으리라 판단된다.

고래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면 포경(捕鯨)이라는 용어는 거의 쓰이지 않았던 반면에 득경(得鯨)이란 용어는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 직접 바다에 나아가 고래를 사냥하여 죽이지 않았더라도 해안가로 떠밀려온 고래는 종종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떠밀려온 고래는 백성들에게 이익이 되기보다는 실제로 또 다른 수탈의 대상이 된다.

『임원십록지(林園十六志)』에는 해안에 고래가 죽어 올라오면 관에서는 백성을 동원하여 이를 해체하게 하고 그 생산물을 수일에 걸쳐 말에 싣고 갔다고 한다.⁶⁷⁾ 고래 한 마리를 통해 많은 이익이 생기지만 그 이익

67) 我國漁戶，無能捕鯨者，但遇自死浮出沙上者，官必發衆丁，持刀斧，斫鬣鬣皮肉，

은 모두 관에서 차지하고 백성들은 노동력만 제공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고래가 해안가에 올라오면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고래를 다시 바다에 밀어 넣어 다른 지방으로 흘려 보냈다고 한다.⁶⁸⁾ 이처럼 고래는 당시의 백성들에게 가혹한 현실을 드러내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정약용은 이러한 고래의 형상을 <해랑행(海狼行)>에서⁶⁹⁾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는 범고래의 잔인한 습성을 우화적으로 드러내면서 고래를 통해 당시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자세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따라서 동해안 지역인 간성의 현감을 지낸 이식도 고래로 인한 폐해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것은 은연중에 그가 고래를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따라서 이식의 고래에 대한 인식과 형상은 분명 오늘날 고래를 떠올리며 바다와 환경을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우리는 고래에 대해서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모습과 함께 그물에 잡힌, 수족관에 갇힌, 포경에 피를 흘리는 것을 생각하며, 인간의 바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존재로서 흔히 고래를 앞세운다.

馬載人輸，數日不盡，獲一大鯨，其貨毋慮，韓國漁業技術史千金，然利盡歸官，漁戶無與，故莫肯學刺鯨之法。서유구지음, 이효지[등]편역, 『魚類』, 『林園十六志』, 교문사, 2007, 218-222면.

68) 我東則沿海郡邑海濱，或有斃鯨漂泊，而得油甚多，爲利不些，然官專其利，反爲民弊，故衆民或推斃鯨入海，俾泊于他境，而一鯨油價，幾至千兩，乃是海上重貨也。李圭景, <鯨鯨辨證說>, 『萬物篇-蟲魚類-魚』, 『五洲衍文長箋散稿』.

69) 海狼狼身而獺皮，行處十百群相隨，水中打圍捷如飛，忽襲魚不知，長鯨一吸魚千石，長鯨一過魚無跡，狼不逢魚恨長鯨，擬殺長鯨發謨策，一群衝鯨首，一群繞鯨後，一群伺鯨左，一群沈水仰鯨腹，一群騰躍令鯨負，上下四方齊發號，膚鬣肌何殘暴，鯨吼如雷口噴水，海波鼎沸晴虹起，虹光漸微波漸平，嗚呼哀哉鯨已死，獨夫不遑敵衆力，小乃能殲巨惡，汝蜚血戰胡至此，本意不過爭飲食，瀛海洋浩無岸，汝輩何不揚，掉尾相休息。丁若鏞, <海狼行>, 『茶山詩文集』 제4권. 이 작품에서 솔피는 범고래를 지칭하며, 솔피와 고래 모두 작은 물고기를 잡아 먹는다는 의미에서 수탈하는 존재로 비유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고래에 대한 생각은 고래가 처해있는 문제를 적확하게 드러내는 것이지만, 대신에 고래에 대한 상상의 폭은 협소해졌다. 반면에 이식의 문학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에 나타난 고래는 오히려 더욱 생동감이 넘치며, 실제의 삶과 밀접한 방식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고래에 대해 알게 된 지식과 비례하여, 고래를 다양하게 형상화하던 문학적 관습은 점점 떠올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전문학에서 고래를 논하고 형상화하는 방식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식의 작품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고래에 대한 상상의 폭을 넓히면서 현대적 의미에서의 고래에 대한 관념을 투사한다면 고래와 바다에 대한 문학적 이해는 더욱더 풍성해지리라 기대할 수 있다.

5. 결론

이식이 왜 고래를 제재로 하여 시문을 지었는가에 대해 답변해줄 수 있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강원도 간성에서 고래를 보았다는 임제의 기록과 고래를 제재로 하였던 다른 시문들을 통해, 그곳에서 현감을 지낸 이식도 고래를 체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단순히 고래를 체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식의 시에 나타난 고래 형상의 다양성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고래를 보고 이야기를 들은 모두가 고래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임제도 고래를 보았다는 기록만을 남기고 있을 뿐, 고래에 대한 다채로운 형상을 시문에 남기고 있지는 않다. 이로 인해 이식의 시문 창작 경향에 관심을 가진다면, 이식은 다양한 제재를 활용하여 시문을 지었고 그 결과 고래에 대한 다각적인 문학적 형상

을 선보일 수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식이 형상화한 고래의 모습은 그의 시문에서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거대한 몸집을 지닌 고래가 물살을 가르며 헤엄치는 모습을 직접 형상화하기도 하고 자연의 거친 모습을 고래를 통해 비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인간 삶의 호방한 기상을 고래로서 형상화하기도 하였지만, 인생의 역경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에서도 고래를 통해 그 역경의 험난함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한 고래는 정치적·역사적 적대자가 되기도 하고 바다 건너 존재하는 위협적인 왜구를 지칭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이태백이 타고 갔다는 고래가 되기도 하고, 절에서 공양 시간을 알리는 종어로서의 모습도 문화적인 배경 하에 형상화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식의 고래에 대한 문학적 형상은 부분적으로 당대의 고래에 대한 관습적 형상 및 인식을 드러낸 것이지만, 그 다양함이라는 측면에서 이식의 시문에 나타나는 고래 형상의 특징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식이 고래를 제재로 하여 이처럼 다양한 문학적 형상을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고래에 내재되어 있는 거대한 어떤 것이라는 인식과 이로 인한 상상이 부각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식의 작품에서 고래의 형상은 생동감이 넘치며 실제의 삶과 밀접하다.

이것은 오늘날 고래를 통해 풍요로운 바다와 환경의 심각함을 떠올리는 것과 다르다. 현대에는 고래 보다 더 큰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기에 그만큼 고래를 통한 상상의 영역은 협소해졌다. 이러한 점에서 고전문학에서 고래를 논의하고 그 형상에 관심을 갖는 것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고전문학에서와 같이 고래에 대한 상상의 폭이 확장되었을 때, 오히려 고래와 바다에 대한 문학적 이해는 더욱더 풍성해지리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자료

- 權近, 『陽村先生文集』, 한국고전번역원 WEB DB.
 洪萬宗, 『旬五志』, 한국고전번역원 WEB DB.
 林悌, 『白湖全書』, 한국고전번역원 WEB DB.
 李植, 『澤堂集』, 한국고전번역원 WEB DB.
 李時省, 『騏峰集』, 한국고전번역원 WEB DB.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한국고전번역원 WEB DB.
 丁若鏞, 『茶山詩文集』, 한국고전번역원 WEB DB.
 『국역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WEB DB.
 고성문화원, 『간성군 읍지(原 水城志)』, 고성문화원, 1996.
 국립문화재연구소, 『반구대암각화』,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서유구지음, 이효지[등]편역, 『林園十六志』, 교문사, 2007.
 성대중 저, 한국고전번역원 옮김, 『青城雜記』, 을재클래시스, 2012.
 성백효 역, 『古文眞寶前集』, 전통문화연구회, 2001.
 蘇軾, 『蘇東坡全集』 下, 中國書店, 1994.
 유지기, 이윤화 번역, 『사통통석』, 소명, 20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8집 12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그림 1. 국립문화재연구소, 『반구대암각화』,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그림 2. <http://cafe.daum.net/bongmyungam>
 그림 3. <http://blog.naver.com/middleway49>

* 논저

- 김상홍, 『다산 정약용 문학연구』, 단국대 출판부, 1985, 89-92면.
 김성진, 『다산의 우언시문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87, 51-52면.
 김인철, 『다산 우화시의 실증적 고찰』, 『어문논집』 43, 안암어문학회, 2001, 112-115면.
 김현주, 『澤堂 李植의 詩 研究』,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2011, 1-3면.
 송재소, 『다산시 연구』, 창작사, 1986, 145-146면.
 신경수, 『택당 이식의 기행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2, 21면.

- 이복규, 「최부의 <표해록>에 대한 두 가지 의문」, 『고시가연구』 22,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239-240면.
- 이상배, 「인조대 태당 이식의 관직생활과 현실인식」, 『백산학보』 83, 백산학회, 2009, 527면.
- 이우정, 「태당 이식과 17세기 초 문다」, 『동방한문학』 46, 동방한문학회, 2011, 121-125면.
- 이한우, 「태당 이식 문학 연구」, 대구대 박사학위논문, 1996, 101-105면.
- 진재교, 「다산의 우연시와 그 성격」, 『고전문학연구』 26, 한국고전문학회, 2004, 355-381면.
- 최호석, 「여행의 즐거움 - 옥소 권섭의 산수 기행」, 『은지논총』 21, 은지학회, 2009, 163-164면.
- 한미경, 「조선시대 물고기 관계 문헌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44, 서지학회, 2009, 266-267면.

ABSTRACT

Literary Images of Whale: Based on the Works of Yi Sik (李植)

Lee, Gi-dae

Whale has been traditionally recognized a typical sea animal, and has invoked a wealth of imagination in our mind particularly due to its gigantic body. That is why whale often appears in various artistic categories including literature. In the same context, this study focuses on the literary works of Yi Sik (李植) to discuss literary images of whale that appears in classical literature.

Literary images of whale that appears in Yi's works develop in various aspects, but they can be classified broadly into 4 categories: First, they are embodiment of whale's dynamic appearances. Secondly, they use whale as a means of metaphor and embodiment about people's life in literary illustration. Thirdly, they use the images of whale to embody the designation of certain figures in social and historical aspect. Fourthly, they highlight cultural images of whale on the basis of ancient Chinese poet Li Po(李白)'s traditions or symbolism as Jongeo(鐘魚)

This way, the images of whale revealed in Yi Sik's works are full of dynamics and are closely connected to our life in reality. And this is different from our thinking about abundance of sea and the precious value of environment when whale comes to our mind, because scientific knowledge about whale is generalized among people, but the width of our imagination about whale becomes ironically narrowed.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continuous concerns for the images of whale appearing in ancient literature will contribute to more affluently improving our literary understanding about whale and sea.

Key Words Yi Sik(李植), Whale, Literary Images, Li Po(李白), Jongeo(鐘魚).

논문투고일 : 2012. 10. 20

심사완료일 : 2012. 11. 25

게재확정일 : 2012. 12. 02